

제59회 범의 날

# 축 사



2022. 4. 25.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의 달성’이라는 이념 아래 제정된 법의 날 제59주년을 맞이하여, 법치주의의 숭고한 이념과 가치를 되새기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처럼, 인간과 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법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다양한 국면, 즉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은 법을 필요로 합니다. 법은 이러한 삶의 지평에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팬데믹 등으로 급변하는 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다양성 존중을 요구하는 국제

각층의 목소리가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로 인해 기본권의 지형이 변화하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차별로 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의 지배 원리 아래 법의 실현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여야 함은 우리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치주의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법을 만들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롭게 법을 적용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대정신과 역사의 흐름에 항상 귀 기울이고 주목하며, 변함없는 헌법 가치를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알맞게 구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헌법재판을 통해 참된 법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법의 존재  
의의를 되돌아보는 법의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